



한 눈에 읽는

주요 환경뉴스

각 분야별 주요 환경뉴스를 한눈에 보다 쉽게 전하는 미디어 섹션 페이지

NEWS ▶▶▶

2010년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대폭 강화

2010년부터 질소산화물, 먼지 등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현행보다 10~50% 강화된다. 환경부는 2010년부터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배출시설을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다.

EU 화학물질 규제 강화에 정부 대응책 마련

유럽연합(EU)이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전반적으로 개편·강화하는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를 도입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REACH에서는 기존 화학물질을 포함, EU내 제조·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정해진 기한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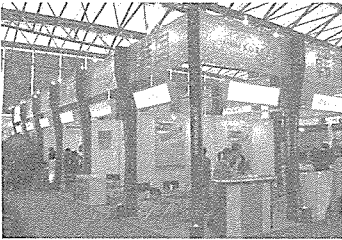
에 제조·수입자가 스스로 위해성 자료를 만들어 등록하도록 하고 있어 산업계 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에서는 'REACH 대응 추진기획단(T/F)'을 설치하고 9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하수관거 BTL사업 총 1조3천억원 투자

환경부는 새로운 민간투자방식으로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하수관거 BTL(Build-Transfer-Lease)사업의 내년 사업규모를 1조3070억원으로 확정하여 15개 지자체의 하수관거 1,539km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선진국 수준의 생활환경 개선과 침수피해 방지는 물론, 약 11만6천명의 고용창출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회 소식

네델란드 암스테르담 · 중국 상해 환경시장 진출



환경보전협회(회장 손경식)는 환경부 및 중소기업청의 지원으로 네델란드 아쿠아텍 2006(9. 26~29일/14업체) 및 중국 국제공업박람회(11. 1~5일)에 한국관 자리를 마련해 참가한다. 네델란드 아쿠아텍2006은 세계 최대의 수처리 전문 전시회로 수질 관련 환경 산업에 종사하는 세계 각국 업체의 최신 환경 기술 및 장비가 전시될 예정이다. 중국 국제공업박람회 또한 상해시 정부의 대대적인 후원을 받고 있는 전시회로 참관객, 전문바이어, 교역액 등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전시회이다. 환경보전협회는 양국의 환경산업 기술과 시장 현황을 파악하고 나아가 우리의 환경기술을 양국 시장에 널리 접목시킬 수 있는 좋은 비즈니스의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보전협회는 환경부의 환경정책 및 국내 환경시장 현황 및 기술,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국제환경기술전시회(ENVEX)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 환경산업체의 적극적인 판로개척과 한국환경산업의 수출마케팅 전략 강화의 목적으로 한국측 참관단도 구성해 파견할 예정이다.

※ 참관단 모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envex.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대기환경청 · 환경보전협회, 『푸른하늘 지킴이』 지도교사 연찬회 개최



미래 환경을 이끌어 갈 어린이들에게 맑은 공기의 소중함과 필요성을 일깨워 주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선우영준)과 환경보전협회(회장 손경식)는 『수도권 푸른하늘 지킴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지킴이는 수도권 대기관리구역(서울, 경기, 인천)내 초등학교(4~6학년) 및 중학생으로 구성되었으며, 대기오염 간이측정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직접 자기고장의 대기오염도를 매일 측정하고 있다. 지난 8월 24일부터 25일까지 1박2일간의 일정으로 충남 태안군 오션캐슬에서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참여학교 지도교사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기 푸른하늘 지킴이 지도교사 연찬회가 열렸다. 환경교육 정보 및 우수 활동사례 전파 등을 통해 학교와 지도교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지킴이 활동지침내용, 향후 추진 계획 등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지킴이 활동 확대를 위해 시·도·시·군·구 교육청 등의 추천 및 참여 희망학교 대상으로 참여학교를 매년 교체 선정하고 있다.

※ 『푸른하늘 지킴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bluesky21.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 · 환경보전협회, 『한강사랑 그림그리기대회 및 아름다운 한강사진 공모전』 시상식 개최



한강의 자연 및 생태환경에 대한 체험을 통해 한강과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물의 소중함을 재인식하며 물사랑에 대한 생활속에서의 실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한강사랑 그림그리기대회 및 아름다운 한강사진 공모전』행사가 약 1개월간 공모 및 엄격한 심사를 거쳐 막을 내렸다. 『한강사랑 그림그리기대회』는 4월 25일부터 5월 26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선착순으로 1,000여점을 접수하였다. 본선대회는 지난 6월 10일 경기도 남양주 미사리 조정경기장에서 진행이 되었으며, 대상(환경부장관상)에는 휘경초등학교 2학년 박예찬의 『한강에 황새가 날아왔어요』가 수상을 하였다. 『아름다운 한강사진 공모전』은 총906점이 접수되어 심사위원들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엄기환씨가 ·보안 우유빛 아침 ·으로 대상을 수상하였다.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이번 행사를 통해 맑은 물, 한강사랑운동에 대한 참여를 높였으며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수상작품 및 수상자명단은 홈페이지 (<http://www.epa.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협회 · 현대자동차(주), 전국 어린이 환경보전 그림그리기 대회 행사 개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아름답고 푸른 우리강산을 더욱 깨끗이 가꾸어 가기 위한 희망찬 꿈을 심어주고, 환경에 깊은 관심을 갖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환경보전협회와 현대자동차(주)가 주최하고 환경부가 후원한 「제19회 전국 어린이 환경보전 그림그리기대회」 시상식이 지난 8월 8일 현대 계동 사옥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본 행사는 지난 4월 26일까지 공모마감을 하여 총 120,223점이 접수되었으며, 본선대회는 지역권별로 예선 통과자 985명이 참석하였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푸른하늘상(환경부장관상)에는 청솔어린이집 이준섭 학생이 수상을 하였다.

환경보전협회, 서울본회 국제환경규제 대응방안 및 청정생산기술 세미나 개최

환경보전협회 서울본회에서는 지난 7월 19일 연수부 교육장에서 72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환경규제 대응방안 및 청정생산기술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최근 EU를 비롯한 미주, 아시아 등 전 세계적으로 제품과 관련된 환경규제들이 발효되면서 제품 회수 처리, 유해물질 사용제한, 친환경설계 등 청정생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환경규제 현황과 기업의 대응방안 및 폐수의 재이용, 폐기물 처리시스템 등 청정생산에 대한 우수사례를 소개하여 경제적인 비용절감 및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발표내용에 대한 자료는 홈페이지(www.epa.or.kr) 일반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환경보전협회 경기도지회, 특별교육 및 여름 환경캠프 실시



환경보전협회경기도지회(지회장 우봉제)에서는 교육사업과 기업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내 기업체 환경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환경관련 특별교육을 경기남부지역(농민회관)과 경기북부지역(경기도제2청)으로 나누어 지난 7월중에 실시하였다. 본 교육은 「대기·수질 배출시설 관리편람 해설과 폐기물관리법 해설 및 사업장 폐기물관리 요령」에 대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의 실무위주의 강의와 자주 질의되는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해설로 환경관리에 열악한 환경기술인들에게 큰 보탬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며, 250여명의 참석자에게는 교육교재와 법규집(폐기물관리법)을 제공하였다.

아울러 경기도지회에서는 지난 7월 24일부터 25일까지(1박2일간) 회원사 임·직원의 자녀 및 환경봉사단원 총 48명을 대상으로 평택시에 소재한 무봉산수련원에서 「여름 환경캠프」를 실시하였다. 방학을 맞이하여 어린이들에게 정형화된 교육의 틀에서 벗어나 자연속에서 생활안전교육과 환경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하천변 생태체험 및 수생식물 식재, 체육활동(수영), 레크레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한 체험학습을 통해 학생들에게 능동적인 사고를 길러주고, 기업체(롯데제과(주)평택공장) 환경시설 및 수련시 폐기물재활용사업소의 현장을 방문하여 오염물질의 처리과정과 폐기물의 재활용과정을 직접 견학함으로써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시켜 주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국 내 소 식

2010년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대폭 강화

2010년부터 질소산화물, 먼지 등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현행보다 10~50% 강화된다. 환경부는 2010년부터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배출시설을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996년 6월 30일 이전에 설치된 발전소 등의 황산화물(SOx) 배출허용기준이 현행 150ppm에서 100ppm으로 강화된다.

대형 발전시설, 보일러 등의 질소산화물(NOx)은 250ppm에서 100ppm으로, 소각시설의 먼지는 80mg/Sm²에서 40mg/Sm²으로 강화된다. 이와 함께 반도체 제조시설 및 액정표시장치(LCD), 생활폐기물 고형화연료제품(RDF), 플라스틱 고형화연료제품(RPF), 매립가스 사용시설 등 신규 산업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되고, 수은(Hg)과 같이 사회적 이슈로 제기된 항목의 배출허용기준도 신설된다. 또한 대기배출시설의 분류체계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27개 시설로 세분화된다.

반면 현실적으로 기준 준수가 어려운 비연속식 도장시설의 탄화수소(THC), 시멘트 소성시설의 염화수소(HCl) 배출허용기준이 완화된다. 그리고 악취 배출시설인 발효시설, 증자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정안은 금년 말 공포된 뒤 2010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오염물질 배출한 1,541개 업체 적발

오염물질을 배출한 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환경부는 2006년 2/4분기 중 전국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체 2만8069개를 단속한 결과 환경법령을 위반한 업체 1,541개

(위반율 5.5%)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 위반건수인 1,434개보다 107개 늘어 7.4% 증가율을 보였다. 적발된 업체는 위반 내용에 따라 폐쇄명령(199개), 사용중지(145개), 조업정지(137개), 개선명령(579개소), 경고(423개)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환경부는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등 그 위반정도가 중한 528개 업체에 대해서는 자체 수사 및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했다. 대기 및 수질배출시설을 설치허가 또는 신고없이 조업한 농업용 기계제조업체인 LS전선(주) 전주공장, 섬유염색 및 가공업체 (주)방림 안산공장, 영창섬유 등 17개 업체는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과 함께 고발됐으며, 오염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한 알루미늄 제조업체 (유)대명 금속, 도축가공업체 (주)북부축산 등 6개 업체는 조업정지 또는 과정근부과와 함께 고발됐다. 대기 및 수질 배출허용기준을 200% 이상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된 도장업체 그린테크(주), 도축가공업체 (주)삼호 등 16개 업체는 시설개선 명령을 받았다.

위반업체는 경기 지역이 528개로 가장 많고, 서울 121개, 대구·경남 각각 116개 순이며, 위반율은 전국 평균 5.5%로, 이는 작년 같은 기간 위반율 4.6%보다 0.9% 포인트 증가했다. 또한 5·31지방선거 기간을 전후하여 인쇄·출판업소, 폐수수탁처리업소 등 1만5488개 업체를 특별단속한 결과, 946개 업체를 적발(위반율 6.1%)해 482개 업체는 고발조치했다

앞으로 주택건설시 새집증후군 해소 고려해야

앞으로 공동주택을 새로 짓는 주택사업자나 건설회사는 새집증후군 해소를 중요한 사항으로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새집증후군 해소를 위해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공고와 함께 2,000세대 이상의 공동

주택을 새로 짓어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실내공기질 성능등급을 의무적으로 공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단위 세대별에 환기시설을 설치할 의무화한다. 그리고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접착제, 페인트 등의 건축자재는 공동주택의 내부 마감재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오염물질이 다량으로 배출되는 주요 건축자재에 대한 친환경 시공가이드를 금년 말까지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새집증후군(<http://www.moct.go.kr>, <http://iaenv.kict.re.kr/index.asp>) 및 실내공기질(<http://iaqinfo.nier.go.kr>)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EU 화학물질 규제 강화에 정부 대응책 마련

유럽연합(EU)이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전반적으로 개편·강화하는 신화학물질 관리제도(REACH)를 도입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REACH에서는 기존 화학물질을 포함, EU내 제조·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정해진 기한 내에 제조·수입업자가 스스로 위해성 자료를 만들어 등록하도록 하고 있어 산업계 부담이 대폭 증가하게 된다.

이와 같이 화학물질 안전관리 책임이 정부에서 제조·수입업체로 이관됨에 따라 화학물질 수출은 물론 이를 사용하여 만든 전자제품, 자동차 등 국내 주요 EU 수출품목의 수출이 차단될 수 있어 심각한 경제적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사전등록기간이 제한되어 산업계의 신속대응이 필요하나, 국내 산업계는 등록에 필요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고, 등록에 필요한 위해성 평가보고서 구성 능력도 충분치 않아 막대한 등록비용 부담이 예상된다. 환경부는 REACH 도입과 국제적 화학물질 규제강화

추세에 대응하여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 구축하여 4단계 추진전략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환경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환경부 직원 4인과 국립환경과학원의 전문인력 4인으로 구성된 'REACH 대응 추진기획단(T/F)'을 설치하고 9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또한 주요 업종별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 전문가를 육성하여 One-Stop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REACH 제도에 대한 Q&A 및 홍보 웹 사이트 등 산업계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7월부터 '사업장 총량관리제' 실시

총량제 실시대상 1종 233개 사업장 중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총량관리제 시범사업'이 지난 6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2007년 3월까지 10개월 동안 실시될 이번 사업은 수도권대기환경청이 환경부와 합동으로 내년 7월 1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수도권 사업장총량관리에 대비하기 위한 것. '사업장 총량제'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을 대폭 삭감하기 위해 농도기준이 아닌 배출총량 기준으로 사업장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총량 규제대상 사업장〉

오염물질	기간	대상 사업장
1단계		
질소산화물(30톤 초과) 황산물(20톤 초과) 먼지(1.5톤 초과)	'07. 7. 1 ~ '09. 6. 31	233 개소
2단계		
질소산화물(4톤 초과) 황산화물(4톤 초과) 먼지(0.2톤 초과)	'09. 7. 1 이후	1,500여 개소

금년 추진되는 사업장 총량제 시범사업은 총량제 실시 대상 사업장 중 시범사업을

희망하는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에 산 10억원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다. 주요 추진내용은 ▲연료 유량계 및 기체 유량계 부착, 배출권거래 업무 등 총량제 시행에 따른 사업장에서 해야 하는 업무 사전시행 ▲배출량원단위 확정, 배출사업장에 대한 실측, 월별배출량 산정 및 검증 등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수행할 업무 사전시행 ▲업체별 배출허용총량할당등 지자체에서 시행할 업무 중 사업장 총량제 실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최종 마무리 하는 단계로 추진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사업장 총량제와 관련해 대상사업장에 대한 설명회 및 총량관리분과회의를 개최해 사업장의 궁금증 해소 및 시행에 따른 건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검토해 동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하수관거 BTL사업 총 1조3천억원 투자

환경부는 새로운 민간투자방식으로 작년 부터 추진하고 있는 하수관거 BTL(Build-Transfer-Lease)사업의 내년 사업규모를 1조3070억원으로 확정하여 15개 지자체의 하수관거 1,539km를 정비할 계획이다.

BTL사업은 민간기업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후 국가·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국가·지자체 등에 시설을 임대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이다.

내년 하수관거 BTL사업 대상지역은 광주광역시, 평택, 원주, 충주, 괴산, 제천, 보령, 서산, 서천, 나주, 포항, 문경, 칠곡, 울진, 거창 등으로 사업희망 수요조사와 신청 지자체의 사업 타당성 파악을 위한 현지조사 등을 거쳐 선정했다. 한편 2005년 BTL사업은 대상지역 17개 지자체(1,570km, 1조원)중 16개 지역이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14개 지자체는 착공에 들어갔으며, 2006년에는 29개 지자체를 대상지역으로 선정(3,511km, 2조 3,070억원)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기본계획 용역을 수행하고 있

으며 올해 안에 모든 지자체에서 사업고시를 마칠 예정이다. 정부는 2004년 68%인 하수관거 보급률을 2010년까지 78%로 높이기 위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총 5조 6천억원의 민간자본을 투자하여 8,824km의 하수관거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선진국 수준의 생활환경 개선과 침수피해 방지는 물론, 약 11만6천명의 고용 창출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강 오염총량관리제 의무제로 바뀐다

환경부는 오염총량관리제를 의무제로 전환, 자율적 노력에 의해 수질을 개선하는 지역에 주민지원사업 추진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함)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99년 한강수계법 제정 이후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규제혁신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수질보전지역 규제합리화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를 이행하며, 3대강 수계법에서 운용하고 있는 제도의 한강수계 도입을 통해 다른 수계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염총량관리제가 의무제로 전환되고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한 자에 대해서는 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징수한다. 그리고 수질보전지역 관리 효율화를 위해 주민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해 수질을 개선하는 지역에는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폐수배출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취급량 및 배출량 줄이기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2년마다 이행실적을 평가받아야 한다.

또한 한강 본류 및 제1지류의 경계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의 지역에서는 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인·허가를 제한한다. 반면 도로철

도건설 등 공공사업에 수반되는 시설로 터널공사시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은 예외적으로 수변구역내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 외에 개정안은 수변구역에 대한 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수질개선사업 계획의 수립시기를 변경하는 등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국회 법안심사 등을 거쳐 내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내 자동차연료 환경품질 세계 수준

환경부는 환경품질등급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올 상반기 동안 수도권지역에 판매된 자동차연료 중 휘발유와 경유의 환경품질등급을 정유사별로 분석·평가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각 업체별로 ★표를 1~5개를 부여하는 환경품질등급에서 휘발유는 SK, GS, S-Oil, 현대, SK인천정유 등 국내 5개 정유사 모두 국제 최고기준에 가까운 수준인 ★표 4개 등급을 받았다. 경유는 S-Oil이 국제 최고기준 수준인 ★표 5개, 나머지 4개사(SK, GS, 현대, SK인천정유)는 국제 최고수준에 가까운 수준인 ★표 4개(★★★★) 등급을 받았다. 휘발유는 황함량의 경우 SK인천정유가 ★ 5개, 나머지 4개사가 ★ 4개 등급을 받았고, 방향족화합물과 벤젠함량의 경우 국내 5개사 모두 ★ 5개 등급을 받았다.

경유는 황함량의 경우 S-Oil이 ★ 5개, 나머지 4개사 모두 ★ 4개 등급을 받았고, 밀도는 국내 5개사 모두 ★ 5개 등급을 받아 자동차 연료의 환경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급산정방법은 외국의 엄격한 환경품질기준에 근거하여 마련했다.

이러한 평가결과를 볼 때, 올 상반기 수도권

지역에 공급된 국내 정유사의 휘발유 및 정유는 국제 최고수준에 근접한 우수한 제품임이 확인됐다.

이는 환경품질등급제 도입된 이후 정유사간 자동차연료 환경품질 경쟁이 촉발되어 환경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로 보인다. 환경부는 올해 처음 도입된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제가 정유사의 자발적인 환경품질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소식

2006 하반기 실물경제 활성화 민관 대책회의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자원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 대책회의”가 지난 8월 7일(월) 대한상의 중회의실(A)에서 열려 기업현장 목소리와 정책건의, 대책마련이 이어졌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최근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경기가 좋지 않은데, 이러한 체감경기 악화가 실물경기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회의를 주재한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도 “우리경제가 상반기 전체적인 총량지표는 괜찮은 편이지만 기업현장에서는 대내외 불안요인으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하반기 경제정책의 중점을 ‘실물경기 활성화’에 두고 기업지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환율·금리 안정, ▲투자관련 세제지원 연장 및 확대, ▲유류(油類) 관련 세부담 경감, ▲기초원자재 수급안정, ▲한계중소기업 업종전환 지원,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효성 제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속추진 등 7가지를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환변동보험 공급확대, ▲Summer Time제 도입, ▲중소기업 원자재 구매자금 조기배분, ▲실물경제를 고려한 금리정책, ▲창업절차 간소화, ▲출생제 폐지 및 대안마련, ▲상법개정, ▲투자, R&D, 중소기업 관련 조세지원 일몰기한 연장(06년~09년) 추진 등 산업계 입장을 적극 반영키로 하였다.

서울 용산국제학교 개교 기념식



코리아외국인학교재단(이사장 : 손경식)은 지난 8월16일 용산구 한남동에서 국내 최고 시설을 갖춘 ‘서울용산국제학교 개교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종갑 산자부 차관, 이희범 한국무역협회 회장, 웨인침리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Wayne Chumley AmCham 회장) 등과 학부모 등 500여명의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손경식 코리아외국인학교재단 이사장은 “서울용산국제학교는 국내 최고의 시설로 건립되었으며 앞으로 학교운영자, 교사진 그리고 학부모 등의 협력을 통해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명문학교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서울용산국제학교가 개교함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불만을 대폭 개선하는 동시에 외자유치 확대에 한 몫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준공된 서울용산국제학교는 국내 최고의 시설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총 1만여평에 지하1층, 지상3층의 규모로 30개의 일반교실과 음악실, 컴퓨터실 등 특별교실을 두루 갖추어 1,000여명의 학생이 교육받을 수 있다. 또한 체육관, 수영장, 도서관과 400여명이 입장가능한 대강당, 300명이 동시에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완비했다. 서울용산국제학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전 과정을 운영하고, 입학대상은 국제학교의 특성에 맞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입학 자격이 있는 내국인 자녀도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25%~30%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입학이 가능하다.